

광주 수입차 판매량 '벤츠' 1위 질주

수입차 3월까지 1305대 신규 등록 ... 전년보다 42% ↑

포르세·마세라티 등 슈퍼카 브랜드 전시장 잇단 개장

광주지역 수입차 판매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럭셔리카(Luxury Car) 위주로 수입차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독일 완성차 브랜드 4사가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출 국내 판매량 1~2위를 지켜오던 BMW가 광주에선 4위에 그친 반면, 메르세데스-벤츠는 1위에 올랐다. 포르세, 마세라티 등 슈퍼카 브랜드도 광주에 전시장을 내거나, 널 계획으로 점차 고급 수입차 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의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508대로 지난해 3월(327대)보다 55.3%나 늘었다. 1분기 누적대수는 1305대를 기록, 전년(920대)에 비해 41.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수입차가 전년보다 3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광주의 수입차 판매량 증가 속도가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셈이다.

브랜드 별 판매량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올해 1~2월 광주시 등록 기준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로, 147대가 팔렸다. 이어 폭스바겐(142대), 아우디(138대), BMW(84대) 순이었다. 지난해엔 순위가 달랐다. 2014년 같은 기간 판매량 1위는 폭스바겐(127대)이었

으며 아우디(105대), BMW(97대), 벤츠(85대)가 뒤를 이었다. 수입차 판매량이 늘면서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는 벤츠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판매량 증가와 함께 고급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독일 슈퍼카 브랜드 포르세는 최근 광주시 서구에 전시장을 개장했으며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인 마세라티도 광주 전시장 개장을 준비중이다. 포르세의 경우 매장 개장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1대에 불과했던 판매량이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12대로 늘었다.

일본차의 약진도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판매량이 20대에 그쳤던 혼다와 렉서스(11대), 토요타(12대)는 올해 같은 기간 각각 45대, 25대, 33대를 판매하면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전남의 경우 올해 2월까지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수입차 브랜드는 폭스바겐

(115대)이었으며, 아우디(113대), 벤츠(106대), BMW(74대) 순이었다.

지역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츠는 지난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렸지만 올해 들어 여유가 생기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며 "타 브랜드에 비해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모델 라인업을 갖춘데다 구매층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판매량 증가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현대·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뒷걸음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3월 점유율(상용차 포함)은 2월 68.1%에서 3월 66.7%로 1.4%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점유율은 66.9%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점유율 69.3%에 크게 못 미쳤으며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3월 62.0%를 기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58.87 (-0.39)
- ▼ 금리 (국고채 3년) 1.70% (-0.03)
- ▲ 코스닥 676.96 (+8.93)
- ▲ 환율 (USD) 1092.30원 (+1.30)



광주은행 송중욱 부행장(오른쪽)과 대한주택보증 강병근 본부장이 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전세안심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주택보증, 전세안심대출 업무 협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은 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안심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과 맺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일 광주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선보이는 '전세안심대출'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마련과 전세보증금 회수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대출 상품이다. 세입자는 은행을 방문해 단 1회 보증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에는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대신 돌려받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전세안심대출의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3% 초반에 출시될 예정으로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이와 함께 전세금 대출이 필요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히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회사에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국건설, '용봉동 아델리움 인 비엔날레' 분양



한국건설(주)이 '용봉동 아델리움 인 비엔날레' 주택전시관을 10일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간다.

지상 최고 19층에 7개 동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옛 한전부지에 들어 서며 전용면적 84㎡ A, B타입 398가구로 구성됐다. <투시도> 용봉동 아델리움 인 비엔날레는 주변의 문화 프리미엄과, 서광주IC로 대표되는 쾌속교통망, 단지 앞 초중고교 등 탁월한 입지 조건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구상으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봉동은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광주를 대표

하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모여 있는 문화의 중심지다.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도 보로 이용할 수 있어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컬처 프리미엄의 수혜 아파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봉동 아델리움 인 비엔날레는 10일 개관 후 16일 1순위 청약 받는다. 문의 (1577-8733).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지역민 자부심 드높일 혁신기업 될 것”

광주신세계 법인설립 20주년 유신열 대표 미래비전 제시



유신열 대표이사

“지역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1995년 4월 10일 현지법인으로 출발한 이래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적인 도전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으로 성장해 온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가 10일로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유신열 대표이사는 9일 “광주신세계가 업계 최초 현지법인이라는 과격적 경영기치로 출발, 스무살 아름다운 청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 덕분”이라며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다.

유 대표는 “업(業)의 본질에 충실한 존재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명품도시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는 혁신 기업이 목표”라며 광주신세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또 “올 해 광주지역 경제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위함과 기회에 맞닥



법인 설립 20주년을 맞은 광주신세계 전경.

러 있다”며 “하계 U대회 개최,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의 대규모 국제행사는 지역 상권이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는 분명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미 이달 초 KTX 호남선이 완전 개통하면서 지역 내 유통산업 인프라의 미흡이 수도권 빨대현상 가속화는 물론 지역 상권 붕괴 위태로움까지 노출돼 있는 점도 사실”이라며 “쇼핑·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법인으로 출발한 만큼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따뜻한 기업을 지향하는 활동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경제 상생, 장학사업, 문화예술지원, 사회봉사, 친환경 경영의 5대 지역친화사업을 구체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콘텐츠 사업으로 발전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 대표는 이어 “스무살의 청년기업으로서 광주신세계는 지역의 품격과 지역민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는 혁신적 도약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해는 경영전반에 걸쳐 획기적 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지역 최대 종합생활문화 기업으로서 도전과 혁신경영을 전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겠다”며 지역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화순 임야 경매에 응찰자 156명 몰려 역대 최고치 경신

화순의 한 임야 경매에 무려 156명의 응찰자가 몰려 경매통계기록 최고치가 경신했다.

9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원경매로 나온 화순군 훈양면 우봉리 인근 9772㎡(3000평가량) 규모의 임야에 응찰자 156명이 몰리면서 5경가(1425만원)의 600%인 855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응찰자 156명은 경매통계기록이후 역대 최고치다. 도로와 접해 있는 이 땅은 토지 서쪽으로 지석전이 흐르고, 동북쪽으로 용암산이 위치해 있는 등 자연환경이 우수해 입찰자가 많았다는 게 지지옥션 측의 설명이다.

한편, 광주의 주거시설 낙찰가율 역시 지난 3월 101.9%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광주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것은 3월을 포함해 3번 있었다. 낙찰 건수도 38건으로 전달에 비해 19건이 증가했다. 38건 중 아파트가 26건, 주택이 5건, 연립·다세대가 3건, 다가구주택이 1건 등이다.

토지 낙찰가율은 4개월 연속 90% 이상을 기록하며 96.6%를 기록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산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상임의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유리지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의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